

**<보도자료>**  
**청소년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바라는**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5월 6일 목요일 12시 30분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 2010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감 만들기 청소년연대(가칭)

1. 6월 2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있습니다. 바로 다음주에 후보 등록을 마치게 되고 다다음 주부터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교육감들을 동시에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례 없이 많은 교육현안들이 쟁점이 되고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공직 중 하나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그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서도 청소년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정치적 활동은 학칙 등으로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이지만 교육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이에 저희 청소년단체들은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고자 뜻을 모아 4가지 핵심 요구안을 선정,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인권·시민 사회단체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내며 답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발언
- ▲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발언
- ▲ 요구 발표
- ▲ 마무리

첨부 :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 질의서

##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온갖 얘기가 오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인공들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전국 모든 교육감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핵심 요구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할 것을 이 사회에 요구한다.

1.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고 있다. 올바른 교육은 학생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양심·사상의 자유, 쉼 권리, 학생의 참여 보장 등등 학생인권 보장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경쟁과 차별을 위한 교육, 계속되는 시험지옥과 입시를 위한 연습으로 점철된 교육은 이미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교육 아닌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가며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고사, 자사고 등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일으키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경쟁교육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라.

1.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다. 경제력이나 장애,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 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상교육과 차별 없는 교육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청소년들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하며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막고 있는 법과 교칙을 개정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물론, 청소년들이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사회에 요구한다.

2010년 5월 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들에 대한 청소년단체 질의서

수신 : 서울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들

발신 :

문의 :

날짜 : 2010.05.06.

1. 바른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교육감 후보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2. 우리는 교육, 인권, 자치 등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운동을 해온 청소년단체들입니다. 우리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교육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으나 투표와 선거 과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각 교육감 후보들이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냅니다.

3. 비록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아니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교육감 후보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인지를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교육감 후보 분들께서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학생들과 관련된 질의에 꼭 답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3. 질의서 내용은 별도 첨부합니다. 5월 14일(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언론에 배포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질 의 서 -

(1)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두발복장규제, 체벌,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등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 교육정책 참여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① 두발복장규제, 체벌, 강제적 자율·보충학습, 종교강요,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침해, 차별 등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학생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③ 만일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최근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2) 대학교교서열화에서 비롯되는 입시경쟁은 초중등교육을 시험을 위한 교육, 입시교육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성적차별과 과도한 학습량으로 많은 학생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반복되는 시험과 입시스트레스에 지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① 이러한 입시경쟁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② 교육감의 권한으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경쟁과 경쟁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③ 만일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집형 학력평가(일제고사)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 정책 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한국에서 교육비를 얘기할 때는 주로 사교육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입시경쟁에서 비롯되는 사교육의 문제도 크지만, 학교를 다니는 데 드는 등록금, 급식비, 준비물 등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경제력 뿐 아니라 장애, 성정체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① 경제력으로 인해 학교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차별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② 장애, 성정체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학교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차별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③ 만일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4) 학생들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임에도 학교 운영이나 교육 정책에 전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을 뿐 아니라 정당 활동, 정치 활동, 선거운동 등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는 학교에서나 교육계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청소년들, 학생들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②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비롯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들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 만일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학교에서나 교육정책 수립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